

일자리 창출과 구민취업 두 마리 토끼잡기

이관수

용산구청 주민생활국장

20090219180@yongsan.go.kr

I. 일반현황 및 여건

-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며 1) 전체면적 21.87km²(시대비 3.6%) 지리적으로 남산과 한강을 끼고 있어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인구는 238,224명이며 그중 2) 경제활동 인구는 173,485명에 이른다. 사업장은 20,027개 기업체가 소재하며 또한 용산구는 60.4%의 재정자립도로서 각종 투자사업, 역점사업, 시책사업을 수행해 나가야하는 바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에도 주민이 바라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펼쳐야 할 행정서비스의 과제는 산적하다.
- 한편, 2010. 12월 현재 우리나라 3) 고용률은 58.0%로 전년 동월대비 0.4%p 상승

1) 통계는 용산구 통계자료 2009년도 기준

2) 경제활동 인구는 15세이상중 학생, 주부, 환자등 제외한 수치를 의미하나, 위에서는 2011. 1월 현재 15~60세까지 용산구 인구수를 현행화된 수치로 표시함.

3) 2010. 12월 통계청 통계자료

했으며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과 비슷한 추세에 있다.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최근 언론에서 접한 정부의 시각은 고용여건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용산구 고용 여건은 뚜렷한 개선 없이 답보상태를 거듭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구민취업 촉진은 의욕적으로 풀어가야 할 여전한 용산구의 큰 숙제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표 1〉 용산구 연령층별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유·청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비 고
계	238,224	48,306	154,382	35,5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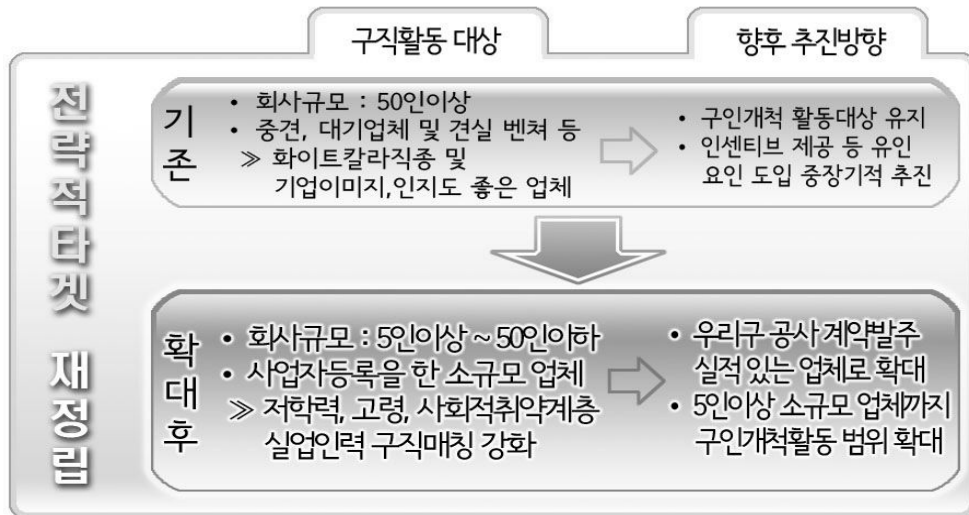
II. 일자리 창출! 용산구 여건에 맞게 구민취업 눈높이에서 시작

- 오늘날 심각한 취업난으로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 구민들의 취업 욕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실정이다.
- 또한 비정기적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조건에서 벗어나 취업을 희망 구민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및 행정지원의 필요성 또한 높아졌다.
- 결국 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 주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안정된 생활기반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서 용산구는 일자리 창출을 구민취업과 직결시켜 고민하고 2011년 동주민 신년인사회를 순회하면서 용산구청장(성장현)이 주민과 만나는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용산구는 매월 주민100명씩 취업 연간 1,200명 취업을 목표로 해서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Ⅲ. 구민취업 강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1. 민간부문 채용개척활동 추진전략

○ 구인개척활동 강화 및 범위 확대전략



자료: 2010년도 구인개척 실적

[그림 1] 전략기획타겟 재정립

〈표 2〉 용산구 연령층별 인구 현황

취업인원	구인실적	구직실적	기업체방문	비 고
714	2,868	1,973	423	-

○ 구인개척활동 단계적 추진계획

- 2011년에는 총 1,26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구인개척활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1단계(상반기)는 용산구 계약발주 업체, 11인~49인 종사자 기업체 등 303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인 개척활동을 진행하고 2단계(하반기)에는 965개 기업(5인~10인 종사자 기업체)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3〉 구민우선채용 추진실적 (2011. 1.12.현재)

(단위: 건)

구분		채 용 인 원		비 고(%)
		전체	구민	
직 접 채 용 (각부서)		144	140	97.2
간 접 채 용 (고용정책과)	기업구인개척	12	7	58.3
	공공근로 등	92	88	95.6
소계		248	235	94.7
누계		248	235	—

○ 기업체 인력채용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시행

-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력채용은 상대적 필수요건이다. 용산구에서는 기업체의 구인요인 즉 동기부여를 위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 먼저 수립하고 2011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20억 이상 부동산은 제외)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대상업체 선정시 가점부여를 해준다.
- 인센티브 지원은 취업 박람회 참여, 채용 실적, 구인 공고, 채용 기간, 지방세 성실 납부, 시책 사업 참여 및 사회적 기여 등의 평가 항목과 일자리 참여, 세정기여, 구정기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표에 의한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다.

○ 수신자부담 전화 개설 운영

- 구직자 상당수가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구직자” 임을 감안 맞춤형 서비스정책 『수신자부담전화(受信者負擔, Receiving Party Pay)』를 2010.11.22부터 서울시 자치구중 제일 먼저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 구직정보 문의, 취업상담시 구직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드리기 위한 전화로써 (080-019-1919) “19” 는 일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착안했다.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고착적 지정 상담창구 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 직업 상담사가 현장으로 구직자를 찾아가는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취업촉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매주 수요일 13:00 ~ 17:00일 유동인구 또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4개 권역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2010. 9.15일부터 방문 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다.
- 현재까지 총 19회 실시해 800명을 상담했으며 이용률은 이후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2]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 구인업체 눈높이와 구직자 눈높이 불균형 조치방안

- 기업이 수요로 하는 구인인력과 용산구 취업알선 체계 (고용노동부 전산망(Work_net), 서울시일자리플러스 전산망 D/B) 양자간 불균형은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관내 소재 대학교(숙대, 한국폴리텍대) 등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할 예정에 있다.
- 점진적으로는 전문,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4) 『취업스터디』 교육 과정 개설·운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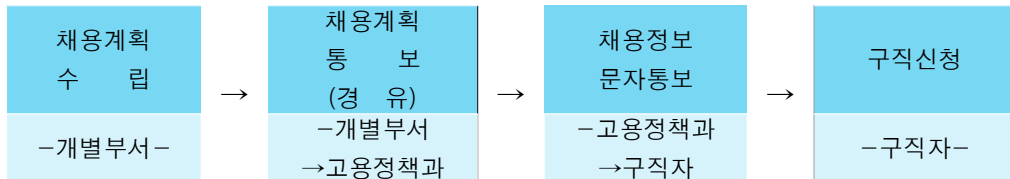
4) 취업스터디 : 면접, 시사상식, 인·적성과정, 자격증반(언어인증시험, 코디 기타)등의 과정

검토하여 고용촉진기반을 구축하고 구인·구직자간의 서로 이해와 소통,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개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다.

2.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직종합정보센터 운영계획』

-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직종합정보센터 운영계획』을 구청장 방침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방향과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추진한다.
- 유기적·효율적 구민채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체 인력운용방안 수립 시행하고 구직자에게 용산구 채용정보 문자메세지(SMS)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며, 채용정보 문자 전송은 구직등록자 및 용산구 근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제공하며 채용정보를 일괄 문자 전송은 일자리 전담부서인 고용정책과에서 맡아서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4〉 구직종합정보센터 운영계획



- 또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력채용 그 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절차 추진 시 경유와 홍보를 특히 강화했다.

- 홍보 : 부서 임의적 → 홍보 의무화 (소식지 및 언론매체 등)
- 경유 : 개선전- 부서 자체 추진 및 종결
개선후- 개별부서 추진절차 진행시 일자리 총괄부서 고용정책과 경유 의무화

IV. 향후 추진계획

○ 취업박람회(중소기업 리쿠르트 투어) 개최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지역의 청·장년 구직자들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현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취업난 해소를 하고자 개최(공동)를 서울특별시와 협의 중에 있다.
- 금년도 2011. 5. 13(OR 17일) 13:00~18:00 (예정) 숙명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중소기업(30개 내외) 및 청년구직자 (300명 전후)를 대상으로 하는데 One line, Off line 병행 운영하므로 참여가 용이하며 이 행사의 2010년도 개최 실적은 31개 기업이 참여하여 343명의 구직자 참여하였다.

○ 중견전문인력 취업박람회 개최

- 중견 전문인력 취업기회 제공 및 우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하고 취업정보 제공과 기업채용 정보공유 한마당 마련과 아울러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관 협력 체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오는 9월경 실시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주체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계획

- 금년부터 우리 구는 일자리 창출에 구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실행가능성과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아이디어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를 검토 중이다.
- 본 사업으로 주민은 내고장 문제에 관심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공무원은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애착과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다.

○ 그 밖의 계획

- 위 주요추진계획 외에도 기업체에 고용촉진을 위한 구민채용을 당부드리는 구청장 공한문 발송, 취업정보와 전문지식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구민특강, 다중이용장소(소형물, 전철역)에 전문 직업상담사가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이동 현장상담실 운영』 등 보다 다양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검토중이거나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V. 맺음말

-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 테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너나 할 것 없이 풀어가야 할 공동과제일 것이다. 중앙정부는 큰 그림으로 정책을 펼쳐간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그 시작과 출발점은 주민으로 주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주민이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보며, 용산구는 이에 따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구민 취업을 더욱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